Symphony No. 7 in C major, Op. 105

- □□

정보

개요
곡명: Symphony No. 7 in C major, Op. 105
작곡가: Jean Sibelius (1865–1957)
작곡 시기: 1914년 초기 소재, 1917년 독립 작품 구상, 1924년 3월 2일 완성
초연: 1924년 3월 24일 스톡홀름 Auditorium, Konsertföreningens orkester, 장 시벨리우스 지휘
초연 표제: Fantasia sinfonica
기준 판본: Jean Sibelius Works, Series I, Volume 8, Kari Kilpeläinen 편집 (Breitkopf & Härtel, 2010)

IMSLP: Symphony No.7, Op.105 (Sibelius, Jean)

Wikipedia: Symphony No. 7 (Sibelius)

장 시벨리우스의 Symphony No. 7 in C major, Op. 105는 관현악을 위한 단악장 교향곡이다 . 인쇄 악보에는 여러 속도말이 나오지만 음악은 멈추지 않고 이어지며 작곡가가 정한 내부 악장이나 표제는 없다. 1924년 초연 때에는 Fantasia sinfonica라는 이름을 썼고 1925년 출판 과정에서 Symphonie No. 7 (in einem Satze), 곧 ‘한 악장으로 된 교향곡 7번 ’으로 제목을 확정했다.

가장 이른 소재는 1914년 교향곡 5번 스케치에서 보인다. 그러나 교향곡 7번이 독립된 작품으로 문헌에 처음 뚜렷이 등장한 때는 1917년 12월 18일이다. 시벨리우스는 1918년 5월 악셀 카르펠란에게 보낸 편지에서 세 악장과 마지막 Hellenic rondo 를 구상했고 초기 1920년대에는 네 악장 계획도 검토했다. 1923년 여름에는 단악장 구상으로 굳어져 있었다. 완성작은 초기 계획을 단순히 압축한 것이 아니다. 여러 악장에 배정하려던
소재를 속도와 박자가 계속 바뀌는 하나의 흐름으로 다시 짰다.

출판 정보와 자료

시벨리우스는 1924년 3월 1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 사이 총보를 마쳤다. 3월 2일 일기에는 그날 밤 Fantasia sinfonica I 를 완성했다고 적었다. 초연은 3주 뒤 스톡홀름 Norra Bantorget의 Auditorium에서 열렸고 작곡가가 직접 지휘했다. 당시 Konsertföreningens orkester는 오늘날 Royal Stockholm Philharmonic Orchestra로 이어진다. 기관 기록은 초연 표제를 Fantasia sinfonica로 정리하지만 실제 당일 프로그램에는 Fantasia sinfonico라고 오식되어 있었다.

완성 자필 총보 HUL 0349는 핀란드 국립도서관에 보존되어 있다. 자필보에는 Fantasia sinfonica No. 1과 Sinfonia 7 continua 라는 제목의 흔적이 함께 남았다. 폐기된 두 결말도 HUL 0354와 HUL 0353에서 확인된다. 제목과 종결은 한 번에 결정되지 않았고 마지막 작업 단계까지 바뀌었다.

시벨리우스는 초연 뒤에도 한동안 Fantasia sinfonica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1925년 2월 25일 출판사 Wilhelm Hansen에 보낸 편지에서는 옛 제목을 다시 언급한 뒤 Symphonie No. 7 (in einem Satze) 가 가장 알맞다고 결론 내렸다. 이 날짜는 편지를 보낸 날이지 출판일이 아니다. 총보는 같은 해 코펜하겐의 Wilhelm

Hansen에서 판번호 18658로 출판되었다 .

1925년 초판 총보와 파트에는 자필보와 어긋나는 음표와 셈여림 , 아티큘레이션이 적지 않았다 . 지휘자 파보 베르글룬드는 자필보와 인쇄보를 대조해 1970년 연구를 냈고 Hansen은 이를 바탕으로 1980년 수정판을 출판했다 . 다만 새 판각을 만들지 않고 기존 판에 수정을 넣었으며 판번호도 유지했으므로 1980년판은 독립된 비평판이라기보다 수정판에 가깝다 . 현재의 기준 비평판은 Kari Kilpeläinen이 편집한 *Jean Sibelius Works* I/8(2010)이다 .

소요 시간

전곡은 쉬지 않고 약 20~22분간 이어진다 . Boston Symphony Orchestra와 IMSLP는 약 20분 , 현행 출판사 연주 자료는 약 21분으로 안내한다 . 빠른 부분을 얼마나 밀고 느린 부분에서 박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 전체 시간은 달라지므로 , 내부 구간에 고정 시간을 붙이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 .

편성

- 목관 : 2 flutes(both doubling piccolo), 2 oboes, 2 clarinets in B♭, 2 bassoons
- 금관 : 4 horns in F, 3 trumpets in B♭, 3 trombones
- 타악기 : timpani
- 현악 : strings

두 플루트 연주자는 중앙의 `Adagio` 에서 피콜로를 겸한다 . 잉글리시 호른 , 베이스클라리넷 , 콘트라바순 , 튜바 , 하프와 팀파니 이외의 타악기는 쓰지 않는다 . 같은 음형이 목관과 현악 사이를 오가고 트롬본 주제가 중요한 도착점을 세우면서 음색이 바뀐다 .

단악장 구성

인쇄 악보의 큰 속도말은 다음 순서다 .

```
Adagio — Vivacissimo — Adagio — Allegro molto moderato — Allegro moderato — Vivace — Presto — Adagio — Largamente molto — Affettuoso — Tempo I
```

속도말 11개는 11악장이나 작곡가가 정한 11개 부분을 뜻하지 않는다 . 사이마다 짧은 연결구와 점진적인 가속 ·감속이 놓인다 . 3/2와 6/4의 큰 박이 바뀌어도 이전의 펄스는 다음 구간에 남는다 . Boston Symphony Orchestra의 해설도 모든 속도 변화를 별도 경계처럼 들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한다 .

첫머리에서는 팀파니의 한 음 뒤로 낮은 현악이 C장조 음계를 올라간다 . 곧바로 C장조에 안착하지 않고 긴 화음과 목관 선율을 거치며 플루트와 바순 네 독주자가 시작한 선율을 비올라와 첼로 전체가 이어받는다 . 이 인계는 네 명의 목관과 현악군 사이의 음량 차이를 그대로 드러내는 대목이다 . 현악이 갑자기 더 큰 소리로 받기보다 `mezza voce` 의 색과 느린 호흡을 이어야 이후의 고조가 설 자리가 생긴다 .

세 차례 트롬본 주제가 전곡의 큰 도착점을 만든다 . 첫 번째는 C장조 , 두 번째는 다단조 , 세 번째는 다시 C장조다 . 이 주제 사이에서 음악은 `Vivacissimo` , `Allegro moderato` , `Presto` 를 거치며 빨라졌다가 다시

Adagio 로 돌아온다. 세 번의 귀환은 서로 떨어진 악장을 묶는 반복이 아니라 계속 움직이는 한 악장 안에서 조성과 속도의 진행을 확인하는 표지다.

첫 트롬본 주제로 다가가는 구간에는 시벨리우스의 구두 전언이 남아 있다. 사위이자 지휘자인 유시 얄라스의 기록을 거쳐 JSW 비평보고에 실린 말에 따르면, 시벨리우스는 이 대목을 “신의 얼굴 앞에 선 듯 ” 연주하라고 했다. 이는 악보에 적힌 표제도, 전곡에 붙인 종교적 프로그램도 아니다. 첫 트롬본 진입 전의 태도와 무게를 설명한 전언으로 한정해야 한다.

종결에서는 마지막 트롬본 제시 뒤 현악의 B음이 C장조 화음 안에서 오래 버틴다. 완전한 C장조 종지는 맨 끝에 이르러서야 확정된다. 사이먼 래틀은 이 결말을 승리의 확언처럼 밀기보다 현악이 남은 힘으로 C에 닿는 과정으로 보았다. 악보의 지연된 해결을 지키면 마지막 화음이 오기 전까지 긴장이 풀리지 않는다.

연주에서 갈리는 선택

속도 변화는 가장 큰 연주 과제다. 네메 예르비는 7번에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운동성이 있으므로
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자필보와 시벨리우스가 보유했던 인쇄본에는 첫머리 템포를 서로
다르게 전하는 숫자가 남아 있다. 특정 메트로놈 수를 절대값으로 삼기보다 느린 첫 박과 빠른 구간의 비례가 끊어지지 않는지를 살피는 편이 자료의 상태에 맞는다.

트롬본의 성격도 연주마다 크게 다르다. Chicago Symphony Orchestra의 트롬본 주자 제이 프리드먼은 이 주제가 말러 교향곡 3번의 독주처럼 전면으로 돌출되기보다 오케스트라 안에서 따뜻한 배경음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완전한 레가토도 뚜렷한 분리음도 아닌 준레가토 발음과 단단하지만 거칠지 않은 poco forte 를 권했다. 이렇게 연주하면 큰 도착점을 음량만으로 표시하지 않고 현악과 금관이 한 음향 안에 머문다.

마지막 화음에는 서로 반대되는 연주 전통이 있다. 콜린 데이비스는 악보대로 금관을 감쇠하면 화음의 지지가 사라진다고 보아 금관을 다시 키우도록 손봤다. 오스모 벤스케는 금관의 감쇠와 현악의 상승을 악보대로
지킨다. 앞의 선택은 종결의 중량을, 뒤의 선택은 끝까지 남는 불균형을 강조한다. 어느 쪽도 작곡가의 숨은 의도로 단정할 수 없다. 1925년 초판의 오류와 후대 교정 역사까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

주요 레코딩

Serge Koussevitzky / BBC Symphony Orchestra — Queen’s Hall 실황, 1933: 1933
년 5월 15일에 남긴 작품 최초 녹음이다. 낡은 음질 너머로 시벨리우스 생전에 형성된 빠른 흐름이
들린다. 초기 국제 연주 관행을 확인할 역사 자료다.
John Barbirolli / Hallé Orchestra — HMV, 1966: 1966년 7월 26~28일 Kingsway Hall
에서 녹음되었다 . 빠른 전환보다 넓은 호흡과 트롬본 주제의 정서적 무게를 강조하는 영국 연주
전통의 사례다.
Herbert von Karajan / Berliner Philharmoniker — Deutsche Grammophon, 1967: 1967년 9월 베를린 Jesus-Christus-Kirche에서 녹음되었다 . 짙은 현악과 매끈한 금관을 바탕으로
긴 고조를 설계해, 목관과 현악의 투명성을 앞세운 핀란드 계열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Paavo Berglund / Chamber Orchestra of Europe — Finlandia, 1997: 베르글룬드의
자필보 대조 연구와 약 50명 규모의 관현악단이 만난 녹음이다. 부선율을 가리지 않는 균형과
가벼운 질감 덕분에 단악장 안의 성부 이동을 따라가기 쉽다.

Osmo Vänskä / Minnesota Orchestra — BIS-2006, 2016: 악보의 전환 지시와 종결부의
금관 감쇠를 세밀하게 지킨 현대적 원전주의 녹음이다. 세 차례 트롬본 주제의 음량 차이와 마지막
현악 상승을 베르글룬드 ·카라얀의 선택과 비교하기 좋다.

주요 자료

핀란드 국립도서관 Jean Sibelius Works 출판 목록 및 Sibelius Archive — JSW I/8과 자필 자료 Breitkopf & Härtel, JSW I/8 — Kari Kilpeläinen 편집의 기준 비평판
Konserthuset Stockholm 작품 해설 — 창작 과정, 초연, 초연 표제
BIS Sibelius Edition 해설 — 다악장 구상과 1925년 표제 확정
Paavo Berglund의 자필보 ·인쇄보 대조 연구 — 초판 오류와 1980년 수정판의 배경
Boston Symphony Orchestra 작품 해설 및 Minnesota Orchestra 프로그램 노트 — 공식 속도말, 편성, 소요 시간
Maurice Christian Boyer, The Articulation of Time in Jean Sibelius's Seventh Symphony — 자필 ·얄라스 자료 ·JSW 비평보고의 연주 정보
Finnish Music Quarterly, 지휘자 인터뷰 — 베르글룬드 ·예르비 ·벤스케 ·래틀의 판본과 연주 관점 Jay Friedman, “Sibelius: Symphony no. 7” — 트롬본 주제의 음량과 발음
Naxos의 Koussevitzky 녹음, Warner Classics의 Berglund 녹음, BIS의 Vänskä 녹음 — 주요 녹음의 역사와 발매 정보